

Analysis of Insolvent Firms and Policy Alternatives

Jooha Nam · Soohye Lee · Myoungjung Kim



발 간 사

최근의 경기는 확장세가 지속되어 94년도에 연평균 8.2%, 95년도에는 9%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율과 부도업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면 형태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이,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건설업 등 비제조업이, 업태별로는 수출보다는 내수기업 위주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도 증가의 원인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른 부도 증가,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담보 부족 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91년 이후 침체한 건설경기나 기타 기술적 요인으로 부도 발생 확률이 없는 어음교환이 감소하고 가계수표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제제도의 변화요인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도현상의 진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상업어음의 활성화 및 신용보증능력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와 통화공급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업어음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상업어음(진성어음) 할인은 실물거래(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급이라는 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금리부담의 경감 효과는 크므로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와 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성어음주의 real bills doctrine를 수용하여 현재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 하에서 상업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상업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험금의 적립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정률로 배분하여 적립하고,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인해 주고, 만약 할인된 진성어음이 부도가 난다면 보험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 대출, 외화대출 확대, 상업어음 할인의 확대 등 각종 금융지원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확대에 의해 보증능력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설비자금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내구연수를 감안하여 일정 기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의해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관행이 담보 위주로 형성된 주요 이유로는 기업 신용평가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추진중인 금융자율화의 실질적 효과도 금융기관들이 기업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는 경우에 발휘될 수 있다.

이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는 데 힘써주신 손병두 부원장과 연구를 위해 수고한 거시경제연구실의 남주하 연구위원, 이수희 연구위원, 김명정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자료정리를 위해 수고한 이혜진 연구조원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Abstracts

There have been increasing bankruptcies in Korea, especially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le the economy as a whole has been experiencing rapid expansion recently. Survey and analysis on the insolvent firms of those are mostly from non-manufacturing or domestic-oriented industries i.e., retailing and housing industries and partly from manufacturing industry reveals various causes of insolvencies; implementation of realname transaction system of financial assets, bipolariz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recession in housing constr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cluding commercial bill clearing system and so on.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to mitigate increasing bankruptcies are 1) full adoption of real-bill doctrine and introduction of real-bill guarantee insurance 2) expansion of Credit Guarantee Funds by government contribution 3) enhancement of credit evaluation cap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목 차

I. 중소기업 부도현황 / 1

II. 부도원인 / 9

- 1)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른 부도 증가 / 11
- 2)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 11
- 3) 담보 부족 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 22
- 4) 건설업의 부도원인 / 27
- 5) 도소매업의 부도원인 / 28
- 6) 기타 기술적 요인 / 29

III. 정책대안 / 31

- 1) 상업어음 활성화 방안 / 34
- 2)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확충방안 / 35
- 3)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의한 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 37

표 목 차

- 〈표 1〉 실질GNP 추이/3
- 〈표 2〉 어음부도율 추이/3
- 〈표 3〉 부도업체수 추이/4
- 〈표 4〉 신설업체 및 부도업체수 추이/4
- 〈표 5〉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5
- 〈표 6〉 부도업체 구분/6
- 〈표 7〉 부도원인별 업체 현황/15
- 〈표 8〉 주요 재무비율 설명/15
- 〈표 9〉 재무적 변수의 평균 비교(t-검정)/19
- 〈표 10〉 중소기업 대출 추이/22
- 〈표 11〉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의 담보별 구성비/23
- 〈표 12〉 일본 도시은행 대출금의 담보구성 추이/24
- 〈표 13〉 자금차입시 애로사항/24
- 〈표 14〉 수취어음의 결제기일별 비중 비교/25
- 〈표 15〉 기업규모별 명목 금융비용/25
- 〈표 16〉 명목 금융비용의 국제 비교/26
- 〈표 17〉 실질 타인자본비용의 국제 비교/27
- 〈표 18〉 기업규모별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요망사항/33
- 〈표 19〉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 내역/34
- 〈표 20〉 신용보증기구의 출연금 조성 실적/36
- 〈표 21〉 일본과 대만의 신용보증기구 출연금 구성비/36
- 〈표 22〉 신용보증의 정부출연금/36
- 〈표 23〉 분석대상 자료/38

그림목차

- 〈그림 1〉 GNP 증가율 / 12
- 〈그림 2〉 수출 증가율 / 12
- 〈그림 3〉 매출액 증가율 / 13
- 〈그림 4〉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 13
- 〈그림 5〉 부가가치내 인건비 비중 / 14
- 〈그림 6〉 제조업의 구조 변화 / 22
- 〈그림 7〉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 / 22
- 〈그림 8〉 건설업체수 / 28
- 〈그림 9〉 미분양 아파트수 / 28
- 〈그림 10〉 부도율 추이 / 29

Contents

I. Survey on Insolvent Firms / 1

II. Causal Analysis of Bankruptcies / 9

III. Policy Alternatives / 31

I

중소기업 부도현황

최근의 경기는 확장세가 지속되어 1994년에 연평균 8.2%, '95년에는 9%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표 1〉 실질GNP 추이

1993				1994				199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9	4.8	6.8	6.4	8.7	7.6	7.3	9.2	9.8	9.2

자료 : 한국은행

부도율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4/4분기에는 0.2%에 달하고 있다. 부도율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의 부도율은 안정적인 반면, 지방의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어음부도율 추이¹⁾

(단위 : %)

연도	'93.7	8	9	10	11	12	'94.1	2	3	4	5	6	7
전국	0.11	0.12	0.11	0.16	0.17	0.15	0.13	0.14	0.14	0.15	0.17	0.17	0.16
서울	0.06	0.07	0.07	0.10	0.11	0.09	0.09	0.08	0.09	0.10	0.11	0.10	0.10
지방	0.40	0.45	0.41	0.52	0.54	0.51	0.44	0.49	0.47	0.45	0.52	0.50	0.51
연도	'94.8	9	10	11	12	'95.1	2	3	4	5	6	7	
전국	0.20	0.17	0.21	0.21	0.19	0.16	0.22	0.23	0.19	0.22	0.21	0.20	
서울	0.12	0.10	0.13	0.13	0.11	0.09	0.14	0.15	0.11	0.13	0.11	0.12	
지방	0.61	0.53	0.61	0.59	0.61	0.52	0.70	0.68	0.60	0.75	0.76	0.69	

주 : 1) 전자결제액을 감안하지 않은 조정전 부도율

자료 : 한국은행

4 •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대책방안

부도업체수는 1993년에 9,502개에서 94년에는 11,255개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의 전반적 호황기인 1995년 상반기에도 6,559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개)

1993	1994					1995		
	1/4	2/4	3/4	4/4	연중	1/4	2/4	상반기
9,502	2,357	2,586	2,850	3,462	11,255	3,081	3,478	6,559

자료 : 한국은행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94년도 1/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최근 부도 증가가 단순히 구조조정 과정이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참조.

〈표 4〉 신설업체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개)

	'93년	'94년					'95년		
		연 중	1/4	2/4	3/4	4/4	1/4	2/4	7월
신설법인수(A) ¹⁾	11,938	16,723	3,589	3,929	4,503	5,152	4,359	4,275	1,735
서울	8,115	10,785	2,336	2,573	2,676	3,200	3,006	2,917	1,041
부도업체수 ²⁾	9,502	11,255	2,357	2,586	2,850	3,462	3,081	3,478	1,342
(부도법인수B)	(3,402)	(4,503)	(906)	(998)	(1,115)	(1,484)	(1,292)	(1,466)	(578)
서울	3,673	4,812	1,008	1,103	1,174	1,527	1,315	1,402	557
A / B	3.5	3.7	4.0	3.9	3.6	3.5	3.4	2.9	3.0

주 : 1) 신설법인수는 전국 7대 도시(서울, 5대 광역시, 수원) 기준

2) 부도업체수는 개인기업체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표 5〉와 〈표 6〉에서는 부도업체들을 업종과 형태, 그리고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와 <표 6>에 의하면 형태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이,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건설업 등 비제조업이, 업태별로는 수출보다는 내수기업 위주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부도업체수의 추이에 의하면 제조업은 1992년과 1993년에 30%에서 1994년에 27.8%, 그리고 1995년 1~7월 사이에는 24.9%로 점차 안정되고 있다. 반면에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1993년의 55.4%에서 1994년 59.1%, 그리고 1995년 1~7월 사이 60.9%로 전체 부도율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표 5>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개)

	1991	1992	1993	1994	95. 1~7	94. 1~7
제 조 업	1,657 (26.9)	3,259 (30.3)	2,850 (30.0)	3,133 (27.8)	1,965 (24.9)	1,699 (29.0)
건 설 업	582 (9.4)	1,131 (10.5)	1,135 (11.9)	1,201 (10.7)	959 (12.1)	648 (11.0)
서 비 스	3,759 (61.0)	6,053 (56.2)	5,265 (55.4)	6,647 (59.1)	4,815 (60.9)	3,356 (57.2)
(도소매)	2,051 (33.3)	3,612 (33.5)	2,973 (31.3)	3,192 (28.4)	1,891 (23.9)	1,705 (29.1)
(기 타)	1,708 (27.7)	2,441 (22.7)	2,292 (24.1)	3,455 (30.7)	2,924 (37.0)	1,651 (28.2)
계	6,159 (100.0)	10,769 (100.0)	9,502 (100.0)	11,255 (100.0)	7,901 (100.0)	5,865 (100.0)

주 : () 내는 구성비, %
자료 : 한국은행

형태별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약 60%, 그리고 중소기업(법인)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법인)의 부도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6 •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대책방안

〈표 6〉 부도업체 구분

구분		1994				1995			
		1/4	2/4	3/4	4/4	1/4	2/4	7월	
전국		11,255	2,357	2,586	2,850	3,462	3,081	3,478	1,342
업종별	법인	4,503 (40.0)	906 (38.4)	998 (38.6)	1,115 (39.1)	1,484 (42.9)	1,292 (41.9)	1,466 (42.2)	578 (43.1)
	대기업	6	3	2	-	-	3	1	-
	중소기업	4,497 (39.9)	903 (38.3)	996 (38.5)	1,115 (39.1)	1,484 (42.9)	1,289 (41.8)	1,465 (42.2)	578 (43.7)
	개인	6,752 (60.0)	1,451 (61.6)	1,588 (61.4)	1,735 (60.9)	1,978 (57.1)	1,789 (58.1)	2,012 (57.8)	764 (56.9)
업종별	제조업	3,133 (27.8)	675 (28.6)	750 (29.0)	777 (27.3)	931 (26.9)	798 (25.9)	832 (23.9)	335 (25.0)
	도소매 음식 숙박	3,192 (28.4)	722 (30.6)	725 (28.0)	807 (28.3)	938 (27.1)	758 (24.6)	837 (24.1)	296 (22.1)
	건설업	1,201 (10.7)	279 (11.8)	273 (10.6)	284 (10.0)	365 (10.5)	370 (12.0)	412 (11.8)	177 (13.2)
업종별	수출	59 (0.5)	28 (1.2)	11 (0.4)	9 (0.3)	11 (0.3)	22 (0.7)	27 (0.8)	5 (0.4)
	내수	11,196 (99.5)	2,329 (98.8)	2,575 (99.6)	2,841 (99.7)	3,451 (99.7)	3,059 (99.3)	3,451 (99.2)	1,337 (99.6)
지역별	서울	4,812 (42.8)	1,008 (42.8)	1,103 (42.7)	1,174 (41.2)	1,527 (44.1)	1,315 (42.7)	1,402 (40.3)	557 (41.5)
	5개 광역시	3,214 (28.5)	712 (30.2)	752 (29.1)	811 (28.5)	939 (27.1)	853 (27.7)	1,022 (29.4)	387 (28.8)
	9개도	3,229 (28.7)	637 (27.0)	731 (28.3)	865 (30.3)	996 (28.8)	913 (29.6)	1,054 (30.3)	398 (29.7)

주 : () 내는 구성비, %

자료 : 한국은행

고 있는 반면, 개인기업은 '94년 1/4분기의 61%에서 '95년에는 57%로 감소하고 있다. 업태별로는 내수기업이 대부분이며, 지역별에 의하면 서울이 약 40%, 5개 광역시가 30%, 그리고 9개도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II

부도원인

1)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른 부도 증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93년 10월의 부도율이 0.16%로 9월의 0.11%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금융 시장의 이용이 어렵고, 무자료 거래의 축소로 인해 세금부담의 가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리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96년도의 금융종합 과세가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최근의 경기회복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해서, 경공업보다 중공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공업 분야의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경제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화학 부문과 경공업 부문간의 양극화 현상이 생산(GNP증가율)과 수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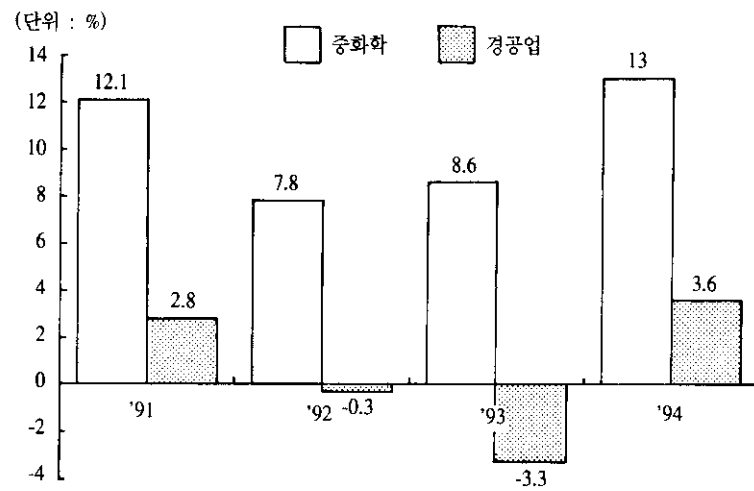
또한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부문의 기업규모별 성장 내용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성장(매출액) 및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이 매우 뒤쳐지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 내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주요 부도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4년도 부도기업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 부

1) 남주하·김동수·김명정, 『부도예측모형 분석』(한국경제연구원, 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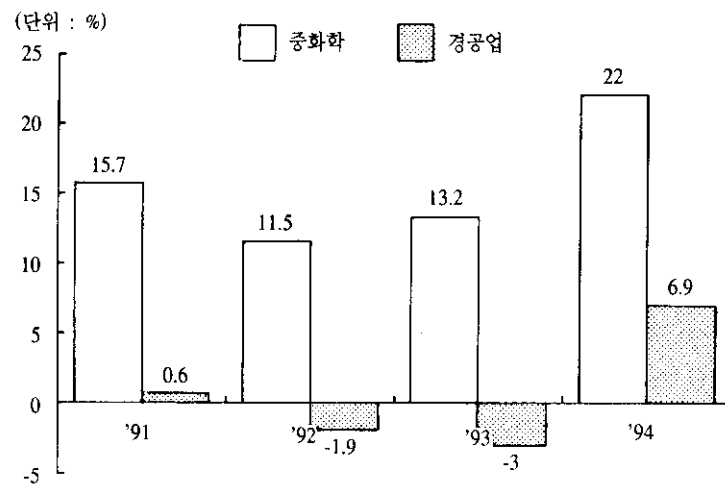
<그림 1>

GN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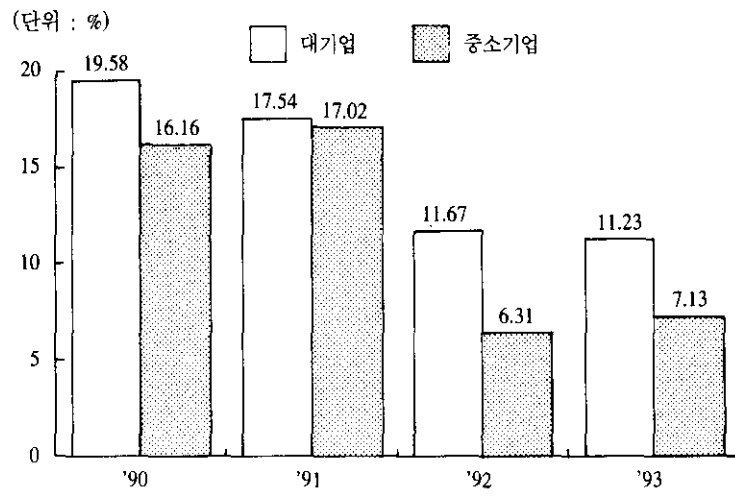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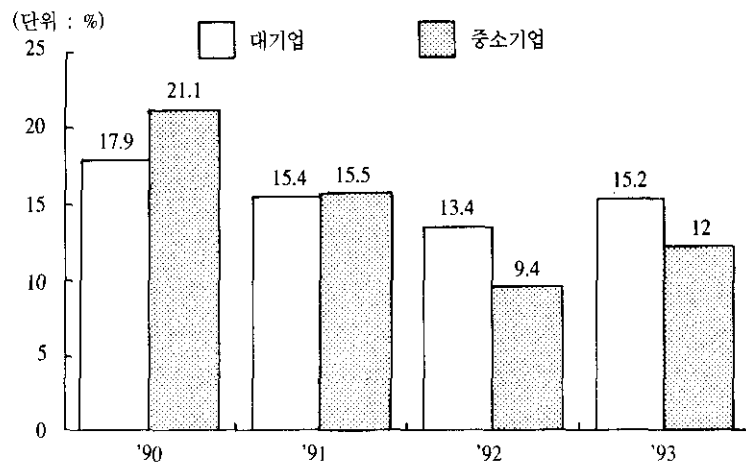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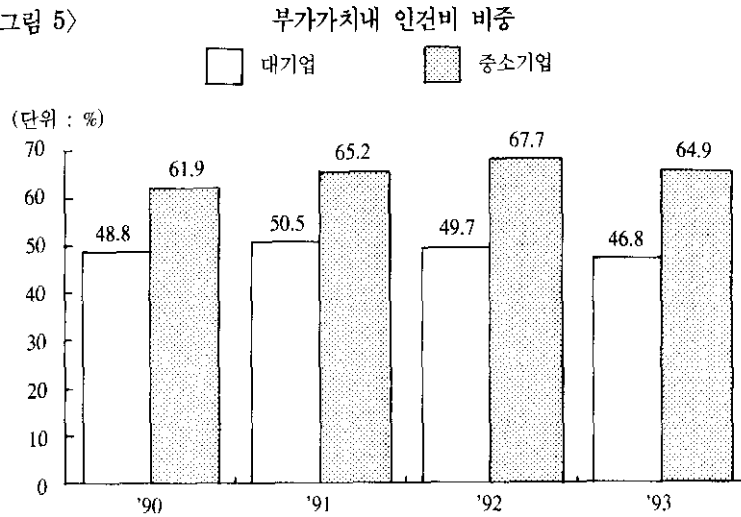
<그림 3> 매출액 증가율



<그림 4>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그림 5>



도기업 분석에 사용된 부도기업군은 1994년에 부도가 발생한 업체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쓰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²⁾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사용한 전체 부도업체수는 446개에 이르며, 이 446개 업체들의 부도원인별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매출 부진에 따른 부도 증가가 48.2%에 달해 최근 부도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 불가(15.7%), 무리한 시설투자(14.8%), 관계기업 부도(10.5%) 역시 중요한 부도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2) 부실기업 또는 은행 입장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으로는 거래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기업을 의미함. 부실채권의 개념은 여신 관리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정상, 요구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 분류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의 여신이 이에 해당됨. 자산건전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참조

〈표 7〉 부도원인별 업체 현황

부도원인	업체수	비고
매출 부진	215 (48.2%)	
매출채권 회수 불가	70 (15.7%)	
무리한 시설투자	66 (14.8%)	
관계기업 부도	47 (10.5%)	
거래업체 부도	22 (4.9%)	
채산성 악화	9 (2.0%)	
금융비용 과다	4 (0.9%)	사채, 은행차입의 증가
생산 중단	2 (0.4%)	대표자 사망, 생산비 증가, 방만한 자금 운용
기타	11 (2.5%)	무리한 부동산 투자, 경영진 도피, 선적 지연 등
계	446	

이들 부도업체 중에서 과거 3개 연도(1991년, 1992년, 1993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주요 재무제표의 자료 수집이 가능한 1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38개의 주요 재무비율(〈표 8〉 참조)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실려있다.

〈표 8〉 주요 재무비율 설명

1. 안정성 변수

- ① 자기자본비율(VAR1) = $\frac{\text{자기자본}}{(\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총자본})/2} \times 100$
- ② 부채비율(VAR2)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 ③ 유동비율(VAR3)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④ 당좌비율(VAR4)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자산}} \times 100$

16 •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대책방안

- ⑤ 고정비율(VAR5) = $\frac{\text{고정자산} + \text{투자와 기타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 ⑥ 고정장기적합률(VAR6) = $\frac{\text{고정자산} + \text{투자와 기타자산}}{\text{고정부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⑦ 차입금의존도(VAR7) = $\frac{\text{차입금}}{\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총자본}} \times 100$
- ⑧ 적립금비율(VAR8) = $\frac{\text{적립금}}{\text{자기자본}} \times 100$
- ⑨ 매출액 규모(VAR9)
- ⑩ 총자산 규모(VAR10)
- ⑪ 부채상환계수(VAR11)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감가상각비} + \text{기타 상각비} + \text{금융비용}}{\text{단기차입금} + \text{유동성장기부채} + \text{금융비용}} \times 100$
- ⑫ 현금흐름(VAR12) = $\frac{\text{영업활동으로부터의 원천}}{\text{영업활동에의 주요운용}} \times 100$

II. 수익성 변수

- ① 총자본순이익률(VAR13)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총자본})/2} \times 100$
- ② 총자본경상이익률(VAR14) = $\frac{\text{경상이익}}{(\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총자본})/2} \times 100$
- ③ 자기자본순이익률(VAR15)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 ④ 매출액경상이익률(VAR16) = $\frac{\text{경상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⑤ 매출액영업이익률(VAR17)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⑥ 금융비용 대 매출액(VAR18) = $\frac{\text{금융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 ⑦ 매출원가율(VAR19) = $\frac{\text{매출원가}}{\text{매출액}} \times 100$
- ⑧ 손익분기점률(VAR20) = $\frac{\text{B.E.P 매출액}}{\text{매출액}} \times 100$
- ※ B.E.P 매출액 = $\frac{\text{고정비}}{1 - ((\text{매출액} - \text{변동비})/\text{매출액})}$
- ⑨ 이자보상비율(VAR21) = $\frac{\text{세전순이익} + \text{금융비용}}{\text{금융비용}}$
- ※ 금융비용 = 사채이자, 지급이자와 할인료

III. 활동성 변수

- ① 총자본회전율(VAR22) = $\frac{\text{매출액}}{\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자본}} \times 2$
- ② 자기자본회전율(VAR23)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 ③ 고정자산회전율(VAR24) = $\frac{\text{매출액}}{\text{고정자산} + \text{투자와 기타자산}}$
- ④ 유형고정자산회전율(VAR25) = $\frac{\text{매출액}}{\text{유형고정자산}}$
- ⑤ 매출채권회전율(VAR26) = $\frac{\text{매출액}}{(\text{기초 매출채권} + \text{기말 매출채권})/2}$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⑥ 채고자산회전율(VAR27) = $\frac{\text{매출액}}{\text{채고자산}}$
- ⑦ 매입채무회전율(VAR28) = $\frac{\text{매출액}}{\text{지급어음} + \text{외상매입금}}$
- ⑧ 운전자산회전율(VAR29) = $\frac{\text{매출액}}{\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IV. 성장성 변수

- ① 총자본 증가율(VAR30) = $\left(\frac{\text{당기말 총자본}}{\text{전기말 총자본}} - 1 \right) \times 100$
- ② 유형자산 증가율(VAR31) = $\left(\frac{\text{당기말 유형고정자산}}{\text{전기말 유형고정자산}} - 1 \right) \times 100$
- ③ 매출액 증가율(VAR32) = $\left(\frac{\text{당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 1 \right) \times 100$
- ④ 순이익 증가율(VAR33) = $\left(\frac{\text{당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 1 \right) \times 100$
- ⑤ 자기자본 증가율(VAR34) = $\left(\frac{\text{당기말 자기자본}}{\text{전기말 자기자본}} - 1 \right) \times 100$

V. 생산성변수

- ① 총자본투자효율(VAR35)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전기말 총자본} + \text{당기말 총자본})/2} \times 100$
- ② 설비투자효율(VAR36)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설비투자액}} \times 100$

$$\textcircled{3} \text{ 부가가치율(VAR37)} = \frac{\text{부가가치액}}{\text{매출액}} \times 100$$

$$\textcircled{4} \text{ 노동소득분배율(VAR38)} = \frac{\text{인건비}}{\text{부가가치액}} \times 100$$

부도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재무자료 역시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비교하여 부도업체들의 부도원인을 살펴보았다.³⁾

정상(우량)기업군의 표본으로는 1991년, 1992년, 그리고 1993년까지 상장되어온 577개의 업체중에서 139개의 제조업체들을 사용하였다.

이 우량기업군을 '94년도 부도발생 기업군과 각각 대비하여 기업 부실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우량기업군과 부실기업군을 구별해 주는 설명변수들을 t-검정에 의해 분석하였다. t-검정은 우량기업군과 불량기업군 두 표본 사이에 분석대상이 되는 재무비율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데 사용된다.

중소상장기업을 우량기업군으로 사용한 t-검정에 의하면 '93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우량기업군과 부실기업군을 구분해 주는 재무비율로는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유형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총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투자효율, 부채상환계수, 매출액 규모, 이자보상비율, 총자산 규모, 운전자산회전율, 금융비용 대 매출액 등 23개 변수들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우량기업군의 표본대상 선정 기준이 상장 여부를 중요시하므로 기업의 재무내용 면에서는 우량기업군에 잘 부합될 수는 있으나, 기업크기 면에서 부도기업군에 비해 우량기업군의 기업규모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표 9〉 재무적 변수의 평균 비교(t-검정)

변수명	분석지표	연도	우량기업	불량기업	t-값	Prob> T
VAR1	자기자본비율	1993	53.35	15.72	29.68	0.0001
		1992	52.05	19.04	23.23	0.0001
VAR2	부채비율	1993	185.65	523.74	-3.91	0.0001
		1992	176.33	470.57	-5.74	0.0001
VAR3	유동비율	1993	155.69	88.51	8.56	0.0001
		1992	152.59	94.27	7.99	0.0001
VAR4	당좌비율	1993	95.48	47.15	8.38	0.0001
		1992	92.31	48.86	8.19	0.0001
VAR5	고정비율	1993	137.50	270.80	-3.74	0.0003
		1992	127.59	266.76	-4.75	0.0001
VAR6	고정장기적합률	1993	78.88	1.41	29.65	0.0001
		1992	75.99	1.26	33.07	0.0001
VAR7	차입금의존도	1993	22.76	52.62	-13.57	0.0001
		1992	24.02	45.65	-9.94	0.0001
VAR8	적립금비율	1993	55.88	45.64	1.06	0.2919
		1992	53.25	24.50	5.61	0.0001
VAR9	매출액 규모	1993	60.22	7.70	-8.91	0.0001
		1992	54.57	7.47	-7.72	0.0001
VAR10	총자산 규모	1993	70.55	7.51	-9.99	0.0001
		1992	62.52	6.67	-8.31	0.0001
VAR11	부채상환계수	1993	39.37	29.24	2.11	0.0360
		1992	13.05	31.52	-5.47	0.0001
VAR12	현금흐름	1993	13.27	7.99	0.25	0.8605
		1992	46.63	5.84	1.70	0.0918
VAR13	총자본순이익률	1993	2.22	1.58	1.18	0.2388
		1992	2.05	1.14	1.26	0.2079
VAR14	총자본경상이익률	1993	2.63	1.78	1.41	0.1596
		1992	2.50	1.65	1.57	0.1169
VAR15	자기자본순이익률	1993	1.51	11.72	-2.06	0.0417
		1992	2.55	8.80	-1.91	0.0581
VAR16	매출액경상이익률	1993	2.83	0.75	2.84	0.0049
		1992	2.87	0.50	4.02	0.0001
VAR17	매출액이익률	1993	5.98	6.03	-0.05	0.9608
		1992	6.45	6.72	-0.41	0.6849
VAR18	금융비용 대 매출액	1993	5.52	7.07	-3.15	0.0019
		1992	5.43	7.17	-3.67	0.0003
VAR19	매출원가율	1993	84.56	82.68	1.81	0.0722
		1992	84.26	81.38	2.50	0.0134

〈표 9〉 계속

변수명	분석지표	연도	우량기업	불량기업	t-값	Prob> T
VAR20	손익분기점률	1993	47.59	47.62	-0.01	0.9957
		1992	46.23	50.93	-0.80	0.4273
VAR21	이자보상비율	1993	1.92	128.30	-14.13	0.0001
		1992	1.98	114.00	-15.51	0.0001
VAR22	총자본회전율	1993	0.94	1.13	-2.94	0.0038
		1992	1.07	1.21	-2.17	0.0319
VAR23	자기자본회전율	1993	2.59	7.07	-5.68	0.0001
		1992	2.73	6.19	-3.64	0.0004
VAR24	고정자산회전율	1993	2.95	2.58	1.65	0.0997
		1992	2.14	2.88	-3.20	0.0017
VAR25	유형고정자산회전율	1993	2.92	3.68	-2.26	0.0254
		1992	3.11	3.70	-1.72	0.0873
VAR26	매출채권회전율	1993	8.19	14.01	-2.79	0.0062
		1992	9.51	14.90	-2.27	0.0244
VAR27	재고자산회전율	1993	6.92	9.99	-2.15	0.0336
		1992	7.01	11.55	-2.69	0.0081
VAR28	매입채무회전율	1993	10.95	11.72	-0.43	0.6645
		1992	12.93	11.77	0.70	0.4828
VAR29	운전자산회전율	1993	5.95	-1.53	5.58	0.0001
		1992	3.84	0.83	1.74	0.0842
VAR30	총자산 증가율	1993	13.18	30.46	-4.13	0.0001
		1992	10.51	31.29	-4.16	0.0001
VAR31	유형고정자산 증가율	1993	12.10	21.74	-1.73	0.0865
		1992	8.80	35.95	-3.20	0.0017
VAR32	매출액 증가율	1993	11.47	22.09	-2.15	0.0338
		1992	7.16	26.58	-4.13	0.0001
VAR33	순이익 증가율	1993	4.07	13.04	-0.78	0.4386
		1992	-18.36	-8.59	-0.89	0.3766
VAR34	자기자본 증가율	1993	14.78	13.25	0.20	0.8403
		1992	6.81	17.20	-1.38	0.1695
VAR35	총자본투자효율	1993	106.01	13.50	31.32	0.0001
		1992	12.94	13.70	-0.80	0.4273
VAR36	설비투자효율	1993	43.24	43.25	-0.00	0.9981
		1992	45.62	23.21	216.6	0.0001
VAR37	부가가치율	1993	14.19	7.87	1.01	0.3138
		1992	13.21	13.00	0.21	0.8313
VAR38	노동소득분배율	1993	30.72	30.19	0.17	0.8628
		1992	29.03	33.26	-1.31	0.1936

이 중에서도 총자본투자효율과 부채상환계수의 '92년, '93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부도율이 최근에 크게 증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도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과 부채상환계수는 '92년, '93년도에 큰 변화가 없으나, 정상(우량)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과 부채상환계수는 '92년, '93년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9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시점에서 정상(우량)기업들은 경기회복에 따른 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단기부채 상환능력이나 총자본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부도기업들은 이러한 경기회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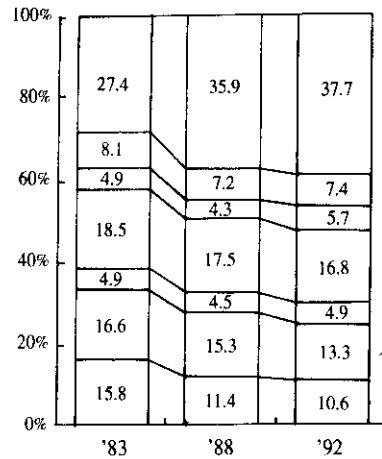
결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게 되지만, 경기회복기에 얼마나 그 이득을 볼 수 있는냐에 따라 기업의 부도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에 의한 부도원인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최근 경기의 양극화에 의한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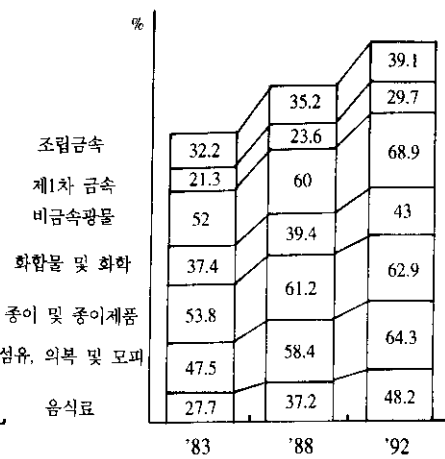
업종별 성장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에는 음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제조업종 중소기업체들의 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제조업의 경제성장이 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업종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성장둔화 업종에 진출한 중소기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제조업의 구조 변화



〈그림 7〉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



3) 담보 부족 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담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 10〉

중소기업 대출 추이

(단위 : 억원, %)

	'90년 말	'91년 말	'92년 말	'93년 말	'94년 말	'94년 중 증감
원화 대출금(A)	540,245	649,061	745,028	834,067	992,976	158,909
중소기업 대출금(B)	300,046	368,560	419,722	494,293	583,425	89,132
B / A	55.5	56.8	56.3	59.3	58.8	56.1

주 : 예금은행(외은지점, 주택, 농·수·축협 제외)의 총원화 대출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판단된다.

특히 '94년 중에는 일반 중소기업 자금 이외에 추석 관련 긴급자금(1조 원), 유망 중소기업 지원(5,000억 원), 자동화 사업자금(5,000억 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도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95년 중에도 자동화 산업 자금(1조 여원), 지방중소 기업지원자금(8천억 여원) 등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관행이 신용대출 위주가 아닌 담보대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부도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예금은행¹⁾ 중소기업 대출금의 담보별 구성비

(단위 : %)

	'88년 말	'90년 말	'92년 말	'93년 6월 말
물적보증 대출	60.7	58.6	55.6	54.6
보증대출 ²⁾	13.1	15.0	15.1	15.2
신용대출	26.2	26.4	29.3	30.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만 포함

2)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지급보증 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특히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에 의한 보증대출 비중이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확대가 커다란 관건이 되고 있다(표 11) 참조).

〈표 13〉에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자금 차입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담보 부족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표 12〉 일본 도시은행 대출금의 담보구성 추이

(단위 : %)

	1976	1980	1985	1991
물적담보				
부동산	31.4	28.5	21.8	24.6
유가증권	11.1	10.9	10.1	5.7
소계	42.5	39.4	31.9	30.3
보증 ¹⁾	25.2	27.0	26.6	33.2
신용	32.3	33.6	41.5	36.5 ²⁾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등 포함

2) 1989년 이후 prime rate 도입 확대에 의하여 신용대출과 예금의 대규모 상계가 행해져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 한국은행

작은 기업일수록 담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자금차입시 애로사항

(단위 : %)

담보 부족	적기차입 곤란	대출한도 부족	금융비용 부담 가중	예·적금 가입 강요	대출서류 복잡
47.1(52.2) ¹⁾	19.3	10.1	8.2	7.8	7.5

주 : 1) 종업원 5~19인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도 '92년 이후 대위변제(代位辨濟) 급증으로 인하여 법정 운용배수인 15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규보증이 어려워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어음의 경우에도 물품거래에 수반되는 진성어음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부족, 한도 부족 그리고 90일을 초과한 장기어음 발행 등으로 인해 할인이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 수취어음의 결제기일별 비중 비교

(단위 : %)

	60일 이하	60~90일	91~120일	121~150일	151일 이상
1993년	11.7	25.9	38.2	19.5	4.7
1994년	12.8	24.5	39.5	18.9	4.3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표 15〉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15〉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금융비용 정도가 매우 높아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1982~1994년 사이 계속 상승되어온 190여개 업

〈표 15〉 기업규모별 명목 금융비용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평균
전체 평균	0.18	0.15	0.16	0.17	0.16	0.15	0.14	0.14	0.14	0.15	0.15	0.13	0.14	0.15
5대그룹 평균	0.18	0.21	0.23	0.25	0.25	0.25	0.22	0.19	0.17	0.19	0.16	0.13	0.14	0.20
6-30대그룹 평균	0.17	0.14	0.15	0.17	0.12	0.12	0.12	0.13	0.13	0.14	0.14	0.13	0.12	0.14
기타 대기업 평균	0.18	0.15	0.14	0.15	0.15	0.14	0.13	0.14	0.13	0.16	0.15	0.13	0.14	0.15
중소기업 평균	0.21	0.16	0.15	0.17	0.17	0.18	0.17	0.17	0.23	0.20	0.19	0.13	0.20	0.18
회사채 수익률	0.17	0.13	0.14	0.14	0.12	0.12	0.14	0.14	0.16	0.18	0.17	0.13	0.14	0.15

주 : 1) 명목 타인자본비용

$$= \frac{\text{금융비용} - \text{구속성예금} \times \text{구속성예금금리}}{\text{이자지급성부채} - \text{구속성예금}}$$

$$= \frac{\text{지급이자 할인료} + \text{사채이자} - \text{현금과예금} \times \text{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text{총부채} - \text{지급어음} - \text{외상매출금} - \text{부채성충당금} - \text{기타 유동부채} - \text{기타 고정부채}) - \text{현금과예금}}$$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계산

2) 분석대상 기업 : 1982~94년 사이 계속 상장되어온 상장기업 190개 전체 평균

체들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금융비용(타인 자본비용)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 전체(명목) 금융비용이 1994년에 1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 명목 금융비용은 5대 계열기업군이 20%, 중소기업이 18%, 기타 대기업이 15%, 그리고 6~30대 계열기업군이 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은 1993년에 비해 '94년에는 7.0%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 상승에 의하여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과 <표 17>에는 금융비용의 국제 비교가 실려 있다. 이러한 금융비용의 국제 비교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명목 및 실질 금융비용 모

<표 16> 명목 금융비용의 국제 비교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한국	A	17.27	13.83	14.34	14.68	12.72	12.73	14.19	14.85	16.40	18.84	17.12	14.07	14.22
	B	17.23	14.77	14.90	15.36	13.36	13.45	16.28	16.85	14.23	13.57	13.40	12.51	12.71
	C	18.32	15.84	16.15	17.47	16.64	15.65	14.92	14.91	14.67	15.60	15.55	13.82	14.59
미국	10.33	11.44	11.21	9.60	7.67	9.12	8.98	8.59	8.73	8.16	7.52	6.46	7.41	
일본	7.50	6.94	6.30	5.82	4.61	4.28	4.27	5.05	7.36	6.38	5.09	3.97	4.24	
대만	8.15	-	-	7.28	-	6.25	5.75	10.00	10.00	9.46	8.17	8.15	-	
독일	7.90	8.20	7.00	6.50	5.90	6.00	6.50	7.00	8.80	8.50	7.90	6.50	6.90	
영국	10.20	9.90	9.99	9.89	10.13	9.37	9.36	9.58	11.08	9.92	9.12	7.87	8.05	

주 : 한국A : 회사채수익
 한국B : 기업경영분석의 재무제표 사용
 한국C : 190개 상장기업 평균
 미국 : 정부채(만기 10년 이상)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일본 : 정부채(만기 10년)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독일 : 공공부문 채권수익률(만기 7-15년)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영국 : 정부채수익률(만기 20년)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한국 : 회사채 평균(만기 3-5년) (주식, 증권거래소)

〈표 17〉 실질 타인자본비용(명목 타인자본비용-GN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국제 비교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대한 국	A	10.77	9.93	10.44	10.48	10.02	9.13	7.49	9.55	6.50	8.74	11.02	9.37	7.98
	B	10.73	10.87	11.00	11.16	10.66	9.85	9.58	11.55	4.33	3.47	7.30	7.81	6.47
	C	11.8	11.9	12.3	13.3	13.9	12.1	8.2	9.6	4.8	5.5	9.5	9.1	9.3
미 국	3.93	7.54	7.51	6.60	5.07	5.92	5.68	4.49	4.43	4.36	4.72	4.26	4.84	
일 본	5.60	6.14	5.10	4.42	2.71	4.68	3.67	3.55	5.16	4.38	3.39	2.97	3.56	
독 일	3.50	4.90	5.00	4.30	2.80	4.10	5.00	4.40	5.70	4.70	2.40	2.60	4.87	
영 국	2.60	4.80	5.39	4.19	6.63	4.37	2.66	2.78	4.68	3.42	4.82	4.47	5.55	
대 만	6.25	-	-	6.68	-	5.65	4.85	6.70	6.20	5.56	4.27	4.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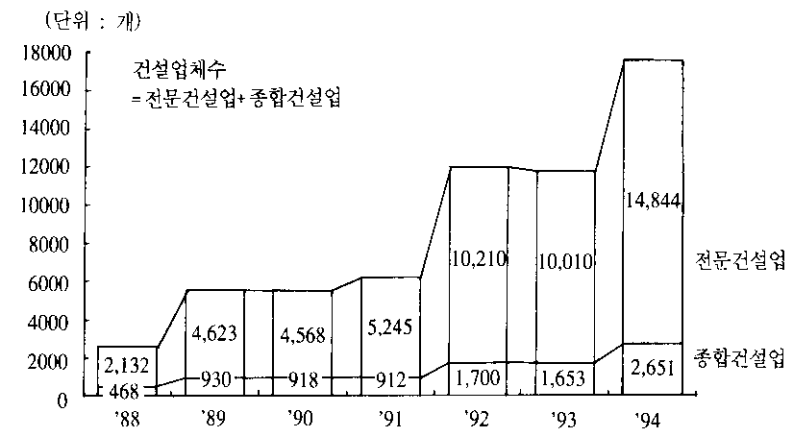
주 : '94년 실질 금융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임.

두 선진국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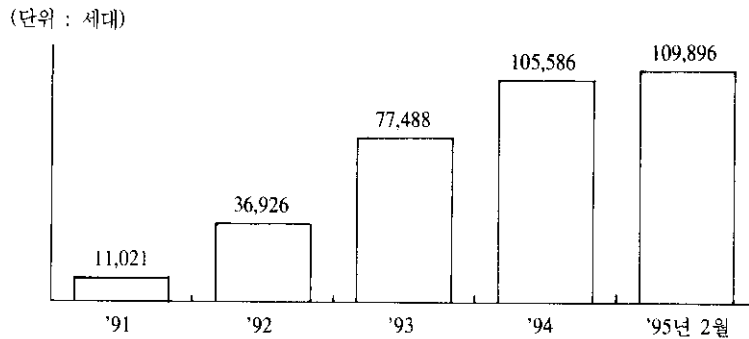
4) 건설업의 부도원인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91년 이후 건설경기는 침체하였다. 반면 1989년부터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 제한을 완화하여 건설업체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 증가, 수주경쟁의 격화 및 수주조건 악화 등에 따른 자금난이 가중되었다(〈그림 9〉 참조). 또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타개책의 일환으로 타업종 인수 등 무리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것도 건설업 부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그림 8〉 건설업체수



〈그림 9〉 미분양 아파트수



5) 도소매업의 부도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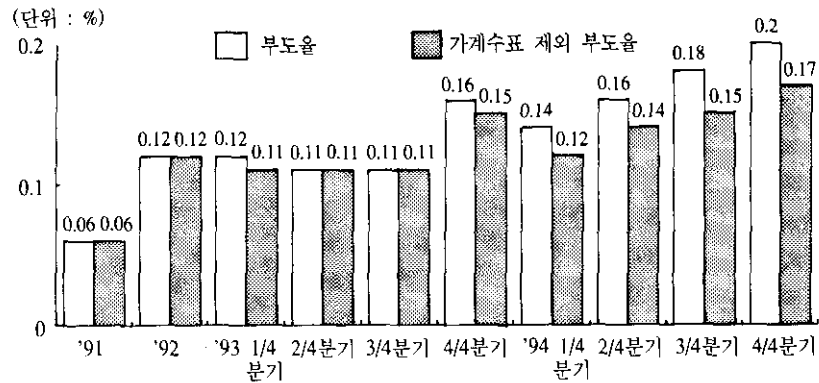
대형백화점,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할인판매 전문 유통업의 개업 등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영세 도소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6) 기타 기술적 요인

덕산그룹 계열기업의 거래부도 등의 일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월말에 많이 발생하는 부도가 설날연휴(1월 29일-2월 1일)로 인하여 2월로 이월됨에 따라 '95년 2월 및 3월의 부도율이 크게 상승(2월 : 0.22%, 3월 : 0.23%)하였다.

부도발생 확률이 없는 어음교환이 감소하고 가계수표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 결제제도의 변화 요인도 들 수 있다(그림 10) 참조). 이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부도발생이 감소하더라도 계측되는 부도율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0〉 부도율 추이



III

정책대안

〈표 18〉에는 기업규모별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요망사항이 실려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용대출의 확대를 크게 원하고 있으며, 중기 전담은행 등의 지원규모 확대, 금리인하, 상업어음 할인의 확대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상업어음의 활성화 및 신용보증능력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의해 각 기업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소위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18〉 기업규모별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요망사항 (단위 : %)

구 분	전체	5~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인 이상
신용대출의 확대	38.4	38.3	36.5	40.9	39.1	35.0
상업어음 할인 확대	11.3	11.2	13.9	10.8	6.3	2.5
금리인하	15.3	14.0	15.6	13.6	20.8	18.3
금융 부대비용 경감	4.5	3.8	4.5	5.1	4.2	6.7
중기 전담은행의 지원규모 확대	17.9	17.9	17.5	18.5	17.6	15.8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철저	1.1	1.1	0.9	1.5	1.0	2.5
지원시책 충실 이행 및 감독 강화	4.1	5.6	4.5	2.4	3.2	0.8
제2금융권의 중기 지원확대	3.2	4.2	2.9	2.2	2.5	5.0
직접금융 확대방안 강구	0.6	0.4	0.7	1.0	0.0	1.7
통화관리 대상에서 중기정책자금 제외	3.6	3.5	3.0	4.0	5.3	11.7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상업어음 활성화 방안

상업어음(진성어음) 할인은 실물거래(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급이라는 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금리부담의 경감 효과는 크므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와 기업 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성어음주의 real bills doctrine를 수용하여 현재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 하에서 상업어음의 할

〈표 19〉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 내역 (단위 : 말잔, 10억 원)

	1993	1994	1995. 5
합 계 (총대출금)	115,137.4	135,850.3	143,271.1
○ 금융자금	108,091.3	127,065.5	133,290.1
- 할인어음	14,994.0	18,694.0	19,601.4
(금융자금중 비중)	(13.9%)	(14.7%)	(14.7%)
무역어음 할인	220.3	409.4	478.2
- 당좌대출	7,759.2	10,289.1	10,548.7
- 일반자금	50,317.5	60,124.7	63,442.5
(금융자금중 비중)	(46.6%)	(47.3%)	(47.6%)
- 정책자금	24,678.3	26,813.6	28,233.7
(금융자금중 비중)	(22.8%)	(21.1%)	(21.2%)
무역금융	2,473.4	2,711.3	2,995.0
수출산업 설비자금	2,838.0	2,492.0	2,171.7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12.3	9.5	3.1
주택자금	14,246.3	16,055.2	16,578.2
농업자금	3,005.6	3,076.5	4,007.0
수산업자금	582.7	544.0	537.4
축산업자금	1,122.7	1,535.0	1,554.4
농어가 사채대체 자금	375.8	368.6	365.4
특별자금 대출	21.5	21.5	21.5
○ 재정자금	6,436.9	8,339.3	9,577.4
○ 국민투자자금	609.2	445.5	403.6

자료 : 한국은행

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상업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험금의 적립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정률(예를 들면, 50%, 30%, 20%)로 배분하여 적립하고(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적립이 가능),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인해 주고, 만약 할인된 진성어음이 부도가 난다면 보험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업어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과 실물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상업어음 할인이 금융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14.7%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표 19〉 참조). 다만 정책금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을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확충방안

1993년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 비중은 각각 22%, 33%에 그쳤다. 이는 일본과 대만의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출연금 비중(약 70% 내외)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표 20〉, 〈표 21〉 참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 대출, 외화대출 확대, 상업어음 할인의 확대 등 각종 금융지원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확대에 의해 보증능력을 우선적으로 높

〈표 20〉 신용보증기구의 출연금 조성 실적 (단위 : 십억 원, %)

구 분	1989	1991	199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누계	914(100.0)	1,154(100.0)	1,644(100.0)
정 부	118(12.9)	131(11.3)	308(22.4)
금융기관	797(87.1)	1,023(88.7)	1,336(77.6)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누계	73(100.0)	199(100.0)	563(100.0)
정 부	37(51.0)	50(25.1)	187(33.2)
금융기관	36(49.0)	149(74.9)	376(66.8)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표 21〉 일본과 대만의 신용보증기구 출연금 구성비 (1990년 현재, %)

일 본	지방 공공단체(65.9%), 금융기관(33.7%), 기업단체(0.4%)
대 만	중앙정부(61.8%), 지방정부(12.4%), 금융기관(25.8%)

이는 것이 필요하다(〈표 22〉 참조).

〈표 22〉 신용보증의 정부출연금 (단위 : 억 원)

1991년 말까지의 총액	1992	1993	1994
1,807	1,640	1,500	3,100(예정)

더욱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간이 설비자금의 경우 기계설비 구입 시까지 제한되어 있어 일반은행에서는 설사 신용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설비자금의 경우에는 취급을 꺼리고 운전자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비자금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기간을 기계설비의 내구연수를 감안하여 일정 기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의한 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관행이 담보 위주로 형성된 주요 이유로는 기업 신용평가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추진중인 금융자율화의 실질적 효과도 금융기관들이 기업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는 경우에 발휘될 수 있다.

기업의 신용 혹은 부실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재무비율 변수)을 찾기 위한 「부도예측모형 분석」(1995)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부실화는 40여개의 재무비율 중 안정성 지표들인 차입금의존도, 부채상환계수와 생산성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있다(표 23) 참조).

$$* \text{차입금의존도} = \frac{\text{장·단기 차입금} + \text{회사채}}{\text{총자본}}$$

$$\text{부채상환계수}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감가상각비} + \text{기타 상각비} + \text{금융비용})}{(\text{단기차입금} + \text{유동성장기부채} + \text{금융비용})}$$

$$\text{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

(부가가치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금융비용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조세공과)

〈표 23〉 분석대상 자료

부 도 기 업	우 량 기 업
1994년도 123개 중소부도기업(제조업체)의 3개 년도(1991, 1992, 1993) 재무제표	1994년도 139개 중소상장기업(제조업체)의 3개 년도(1991, 1992, 1993) 재무제표

주 : 분석방법으로는 Logit 모형이 사용되었음.

그러므로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과 부채상환계수, 매출규모가 크고, 차입금의존도가 낮을수록 기업의 신용은 높은 것이며 부도확률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주요 재무비율에다 각 은행지점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자, 기존대출에 대한 연체횟수,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면 기업의 객관적 신용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신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시장금리에 의한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부동산 담보에만 의존하는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상업성 혹은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